

제 목	국 문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정책 개발		
	영 문	Development of Health Policy in Asian Countrie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한중 ¹⁾ , 손명세 ¹⁾ , 이명근 ²⁾ , 신승호 ¹⁾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 문	Han-Joong Kim ¹⁾ , Myung-Se Sohn ¹⁾ , Myung-Ken Lee ²⁾ , Seung-Ho Shin ¹⁾ 1)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이 명 근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개발도상국의 보건기획 전문가와 지역사회 시범사업 책임자들에게 한국의 20년간의 보건사업 경험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가국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기획 과정의 훈련과 시키고 보건개발사업 수행시 문제점 및 수행과정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각국의 보건사업 능력을 향상하는데 있다.

2. 연구 방법

프로그램진행은 한국의 보건의료관련 관계자들의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재정체계, 전염성질환관리, 한국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의 지역 사회보건의료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강의와 참가 각국의 보건의료현황을 제시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연변 조선족 자치주), 네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6개국의 보건부의 관리와 대학의 교수들이 참가하였으며, 각국의 보건의료제도, 인력, 재정현황과 문제점을 토론하였다. 참석자들은 텔파이 기법을 통하여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문제중 공통의 관심사들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문제를 도출하도록 했다.

3. 연구결과

각국의 참석자들이 선정한 보건의료 문제들로는
보건의료재정체계의 개발

전염병 질환관리

의료전달체계개발

모자보건

의학교육체계개발

보건위생개선

영양프로그램개발등이 제시되었다.

프로그램의 평가는 총괄적 개요와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하여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총괄적 개요는 전반적인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상호관련성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기획, 생산성, 보건의료이용 및 정책실행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한 부문별 계획으로는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재정, 전염성 질환관리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4. 고찰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아직도 높은 인구증가율, 높은 영아사망율, 영양실조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자원부족, 시설부족, 보건의료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한국은 경제개발에 따르는 보건의료문제의 제기, 해결방안, 실제처리 등이 경험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즉, 개발도상국의 문제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보건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건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한 설정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